

'진안고원형용기장' 공개 시연회 개최

전북 무형문화재 이현배 용기장 용기 제작 시연·고려도기 재현품 등 전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진안고원형용기장 보유자 이현배 용기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

시연회는 진안군 백운면에 위치한 손내용기점(백운면 임진로 1724)에서 열리며 '용기문화와 글로벌(global+local) 진안'이란 이름으로 고려도기 재현품 등을 전시하며 용기 제작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진안'은 '고려'의 도기와 홍삼을 진안의 도토리 청자요지와 인삼재배문화로 접목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고려무유도기시투와 현대화 부역의 재현을 통한 홍삼증상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며, 도토리 청자요지의 터인 중평마을 주민들과 함께 제작한 용기들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이현배 용기장은 약 30년간 진안 백운면 손



이현배 용기장

내마을에서 용기점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의 개인전을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협업해 난파선 출수 고려도기를 연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손내용기가 출품한 달항아리와 전골술 작품이 유네스코 우수 수공예품으로 인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이러한 실적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17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진안고원형용기'는 일반적인 남부식 용기보다 어깨가 훨씬 발달해 마이산처럼 솟아오른 힘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현배 용기장은 이러한 진안 도자문화의 전통과 맥락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진안 용기문화의 발전과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공개시연회에서도 용담과정유적 출토 난항도기, 난파선 출수 고려도기 재현품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며 홍삼증상시투와 디저트 용기투 제작 실연 및 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성료

5개 시·군서 총 92회 공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내 한옥경관을 활용한 지역특화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야간상설 공연을 운영해 체류형, 숙박형 관광 등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에 재단에서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시·군과 예술단체를 선정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시·군은 전주(시·군과 연피), 익산(세종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 임실(필봉농악보존회), 고창(고창농악보존회), 부안(포스댄스컴퍼니) 등이다.

올해는 각 지역에서 18회 이상 상설 운영해 총 92회 공연을 선보였다. 관람객은 1만2,001명으로 전년 대비 1.6배(7,275명) 증가했으며, 332명의 예술인이 참여해 예술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여기에 2023년(2022년 실적) 한국문화예술위



2023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원회 자체 평가에서 98.2점을 받아 예술 분과 23개 중 3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특히 지역소멸 대응, 로컬 콘텐츠 발굴, 체류형 관광객 유입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관객은 "한옥을 배경으로 한 무대와 시원한 밤바람을 쐬며 관람한 공연

이라 몰입도가 더 높은 것 같았다"며 "공연이 끝나고 근처 관광지까지 구경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내년에도 도내 시·군과 협력해 지역 특색을 담은 공연콘텐츠를 발굴해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소리 판' 완창무대 출연자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2024년 판소리마당 '소리 판'에서 완창 무대를 펼칠 출연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판소리 5바탕(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중 한바탕을 부를 수

있는 음악적 역량을 갖춘 19세 이상 소리꾼이며, 심사를 거쳐 중견 명창부터 신예 소리꾼 등 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무대 운영을 비롯해 소리꾼과 교수에게 출연료 등을 지원하며, 기간은 오

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nice12s@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판소리마당 '소리 판' 완창무대는 판소리 완창 공연의 정착과 판소리의 계승·보존, 그리고 판소리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자 2020년부터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시작한 대표적인 기획공연으로 2024년 3월부터 국립민속국악원 예음실에서 총 5회 개최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문화재단, 오디오북 콘서트 개최

14일 서점 카프카 · 15일 서점 물결서사 등 동네책방서 진행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4~15일 이틀간 책을 귀로 듣는 동네책방 릴레이 오디오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디오북을 발간한 작가들 가운데 6인이 참여해 전주 동네책방에서 소규모로 진행된다. 행사는 14일 서점 카프카에서 시작해 15일에는 서점 물결서사에서 마무리된다.

첫날 참여 작가로는 오디오북 '날아라 자전거'의 저자 김근혜 작가, 소설 '코카브'로 자음과 모음 장편소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소설 '그럴 수만 있다면'을 오디오북으로 발간한 김소운 소설가, 전주 지역 글 모임 '글 쓰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며 올해 오디오북으로 시집 '레몬 씨를 구성하는 레몬에는'을 선보이게 된 김주현 시인 등 총 3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어 15일 행사에는 소설 '꽃'으로 등단하여 카프카를 운영하는 책방지기이자 오디오북 '오동나무 서랍'의 저자 강성훈 소설가, 스티븐 장편소설 '가족이데아'를 집필하고 소설 '이오타 언니에 관한 거짓말'을 오디오북으로 발간한 저자 장해립 소설가, 재단의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발간한 오디오북으로 '제9회 대한민국 전지출판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들꽃상여' 저자 최기우 작가가 참여해 오디오북을 매개로 한 독서의 즐거움을 전파할 계획이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디오북 청취 및 낭독의 자리, 작가와의 대화 등으로 구성, 이틀간 책방 한쪽에는 참여 작가 6인의 다른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작가 홍보부스를 마련하는 등 행사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정이다. 특히 전주문화재단의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 추진하는 것으로, 문학작품과 미디어를 융합해 새로운 독서문화를 선도하고 지역작가의 작품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함께 문학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작가와 함께 오디오북 독자와 독서 문화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등재학술지 선정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발간하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이 202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신청 자격, 체계 평가, 내용 평가 등 총 3개 분야로 평가해 학술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공존의 인간학'을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 담론을 생산·공유하는 학문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창간됐다. 이후 학술지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1년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2023년 등재학술지로 승격된 것이다.

특히 창간 이후 공동체로서 인간의 관계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문학·역사·철학뿐만 아니

라 문화연구, 사회학, 융복합 분야를 포함한 학제 간 연구 성과를 수록했으며, '인간학'과 '공동체'라는 학술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여 왔다.

변주승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학'에 초점을 맞춘 학술지인 '공존의 인간학'이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면서 "향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도출하는 물론, 학술적 가치를 확산하는 전문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존의 인간학'은 1월과 7월 연 2회 발간되며, 현재 11집 발간을 목표로 여러 학문 성과를 모집 중이다. 수록된 논문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https://www.jj.ac.kr/icsk/)에서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창립 제48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

신·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18:00 **장소 | 순창장애인체육관**

모시는 글

회장단 및 감사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하나되어 미래로 더 높이 도약하는 순창청년회의소에 평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순창청년회의소 창립 제48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과 아울러 **신·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창청년회의소 회장 **이시열**
2024년 회장 **이진선**

이임회장
이시열

취임회장
이진선

상임부회장
신희성

내무부회장
오유준

외무부회장
김우재

감사
황영하

감사
김도민

전역회원
선택수
서연수